



금황 황도계열로 7월 중순이 숙기이며 평균 과중은 295g 정도다.



수황 황도계열로 7월 중순이 숙기이며 평균 과중은 330g 정도다.



홍백 백도계열로 7월 중하순이 숙기이며 평균 과중은 305g 정도다.

경북 청도의 여름은 복숭아가 익어가며 농가를 살찌우는 계절이다. 이때때면 복숭아 농가는 새벽 3, 4시부터 분주히 손을 놀리며, 애지중지 키워온 탐스런 복숭아를 한철 내내 수확해 낸다. 청도복숭아는 수십년간 전국 유통시장을 주름잡으며, 청도에서 없어선 안 될 효자품목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청도군은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로 복숭아 품종을 개선하고, 여름철 최고 과일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서두르고 있다.



잘익은 탐스런 '청도복숭아' 건강한 여름을 부탁해

◇청도복숭아의 재배 역사

경북 청도지역의 복숭아 재배 역사는 약 200여년 전 청도군 화양읍 신봉리 홍도(紅桃)마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도군에 따르면 청도복숭아 시조마을인 홍도마을은 옛날부터 복숭아나무가 많아 홍도촌이라 했고, 복숭아가 성하면 마을이 넉넉해진다라는 속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화양읍에서 가장 고지대인 이곳 경사지를 이용해 1940년대부터 황도골 자생 복숭아를 개량한 품종을 재배해 부를 일궈왔다고 한다. 마을 입구 '청도복숭아 유래비'에서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청도지역 전역으로 살펴보면 1960, 70년대 '대구능금'이 인기를 모을 때 인근 경산, 영천 농가가 앞다투어 사과 재배에 나섰으나, 청도 농가들은 복숭아와 감(반시)을 선택했다. 청도는 산지가 70%인 분지인 데다 풍수해가 적고 풍부한 일조량, 밤낮의 기온 편차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 관련 학계에선 흠뻑이 강하고 척박지에 잘 견디는 복숭아 품목 선택은 결과적으로 당시 청도농가의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탈과 야산 등 물 빠짐이 좋은 산지를 개간해 생산된 산복숭아는 과일이 단단하고 당도가 좋아 '부자 과일'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 백도, 황도계열인 청도복숭아는 품종개량과 친환경 농법까지 보급되며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일의 크기, 향기, 당도, 과즙 등 일품

복숭아는 과일의 크기와 독특한 향기, 높은 당도, 풍부한 과즙으로 평가받는다. 털복숭아(유모계) 계열인 청도복숭아는 과육 크기가 남다르고 품종마다 독특한 향기를 머금고 있다. 백도, 황도 품종은 평균 당도가 11~13브릭스(Bx)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높다. 백도 품종은 한입 베어 물면 입안에 과즙이 그대로 배어나는 것이 일품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에 따르면 수박·참외가 시원한 과일이라면 복숭아는 환자나 허약체질에도 좋은 '따뜻한 과일'이다. 민간에선 열이 많은 민물장어와 복숭아를 함께 먹는 것을 금기시할 정도로 한다.

청도복숭아연구소 김임수 소장은 "여름에 찬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도 예쁜 과일의 대명사인 복숭아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질리지 않는 여름철 최고 과일"이라고 했다.

이밖에 복숭아의 주요 성분 가운데 폴리페놀은 항암효과가 있으며, 포도당, 과당, 유기산이 다량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식육증진과 피로회복에 좋다. 비타민A, C와 팩틴질이 풍부해 변비와 이뇨 작용 등 여러 효능도 알려져 있다.

◇이론과 실기 겸비 공부하는 농부들
청도지역 복숭아 농가들의 우수 품종 생산 비결

200년 넘는 재배 역사 '경북 청도'

독특한 향·높은 당도·풍부한 과즙 허약 체질에 좋은 '따뜻한 과일'로 폴리페놀 풍부해 항암효과 뛰어나 식육증진·피로회복·변비 등 효능

품종개량 연구·재배방법 개선

신품종 '수황·금황·홍백' 3종 출시

대표 품종 브랜드화·명품화 계획

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의 덕분이다. 지역 농가들은 작목반과 공선회 조직을 통해 대면 모임을 갖고, 최근엔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재배정보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청도군 복숭아 아카데미, 청도복숭아연구회, 청도복숭아명품화연구회 등 학습단체는 기술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복숭아 관련 품평회나 세미나가 있으면 지역이 어디든 발품을 마다하지 않는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권정애 소장은 "정보교류와 학구열에 불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농가가 많은 곳이 청도지역"이라며 반기고 있다. 청도농민사관학교 내 10개월 과정의 복숭아아카데미는 올해 16회차(정원 40명)를 맞았고, 이론과 현장 실기 능력을 올릴 수 있어 입학시즌마다 치열한 입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복숭아 현장 분야에서 '박사급'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복숭아 마이스터도 대거 배출됐다. 4년 과정의 영남대 복숭아 마이스터 대학의 경우 전국에서 12명의 마이스터가 나왔고, 이 가운데 4명이 청도출신이다. 경력과 기술, 발표능력을 두루 갖춘 이들은 영농현장에서 고급기술을 파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월부터 9월까지의 복숭아 수확철로 청도 농가마다 애지중지 키운 열매를 수확하며 미소 짓는다.

◇'핫(hot)'한 신품종 속속 출시

청도군은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춘 품종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해외 생과 수출을 위해 착색이 좋고, 저장성과 고유의 향이 풍부한 새 전략 품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도군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품종과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백도·황도 계열의 품종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지역 농협 및 기관과 협의해 천중도백도, 오도로끼, 신백도, 미백, 창방 등 청도복숭아 브랜드화를 위한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이달 현장평가회에서 호평을 받은 신품종 삼총사로 황도계열 '수황', '금황'과 백도 계열 '홍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황은 무게 330g, 당도 12브릭스를 자랑하며, 금황은 무게 295g, 당도 12브릭스로 은은한 황금색 바탕에 연한 적색으로 착색된다. 홍백은 무게 305g, 당도 12.7브릭스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숭아 수급 미래전망도 밝아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6대 과일 생산액(단가×생산량·2018년 기준) 추이 전망에서도 복

숭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위 사과(23.1%·9682억원), 2위 감귤(23%·9609억원)에 이어 복숭아(17.4%·7282억원)가 3위에 올랐다. 지난 2010년 5위에서 2018년 3위에 랭크되며, 앞으로도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꾸준히 증가할 대표작목으로 보고 있다.

포도(14.9%·6239억원), 배(7.4%·3117억원), 단감(5.2%·2190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이번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복숭아와 포도는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품목으로 예상된다.

청도군 관계자도 "지난 2008년 FTA에 따른 복숭아 폐원 정책 이후 다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kg당 단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청도복숭아 브랜드화' 위해 대표 품종 집중 육성

"청도복숭아 브랜드화를 위해 속기별로 대표 고품질 품종을 단계적으로 선정하고, 시장변화와 수출에 적합한 품종에 대해 대규모 재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북 청도군 이승을 군수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복숭아와 청도반시(감) 등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

가로 가장 일선에서 뛰고 있다. 특히 최근 복숭아 재배기술은 오랜 관행 농법을 깨고 이미 상향평준화 시대에 접어들어 만큼, 앞으로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품종개선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농가별로 무분별하게 출하하거나 유통업체에서 동일품종의 대량매입 요구가 있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200여종의 품종 가운데 가장 적합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시장에 이어 그의 눈길은 해외수출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홍콩, 미얀마 등 현지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어 수년째 복숭아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캐나다, 일본 등 현지 판촉전에 직접 뛰어들어 'K-프루트' 유행에 청도군도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군수는 "농가마다 애지중지 키우는 청도복숭아는 앞으로 저장성을 개선하고, 후속시 당도가 더 올라가는 신품종 개발 등 명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노진규 기자
/사진·청도군 제공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충북신문 부산일보 吉林日報 제주일보 新팔도명물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